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
- Reuters: 4월 미국의 수입 물가 2년 만에 최고치 기록
- Bloomberg: 미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 감소…뉴욕 공립학교 방학 끝나면서
- Bloomberg: 뉴욕 연준 총재, “연준, 현 통화 정책 바꿀 필요 없다”
- WSJ: 미국은 여전히 소프트랜딩으로 향한다

[미국 금융]
- Bloomberg: 다우존스 사상 처음 40,000 돌파…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 Bloomberg: JP 모건 CEO, “많은 인플레 요소가 우리 앞에 있다”

[미국 생활]
- CNBC: 미 소비자 평균 카드빚은 $6,218… 연체자 더 늘어난다

[유가]
- Bloomberg: 유가 상승 … 미 비축분 감소에 따른 우려로

[주택]
- Bloomberg: 모기지 금리 상승으로 ‘미 신규 주택 허가’ 감소
- WSJ: 플로리다, 텍사스 집값 하향 움직임

[미중 경제]
- WSJ: 미국, 강제 노동 관련 26개 중국 기업 수입 차단
- CNN Business: 미 무역대표부, ‘대중 관세 부과, 미 가격 상승 일으켜’ 우려 일축
- WSJ: MS, 미중 긴장 속 중국 직원에게 ‘해외 이전’ 요청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WSJ: 팬데믹 종결 불구 대기업들 여전히 배당금 지급 미룬다
- WSJ: 월마트, 올해 수익 전망 상향 조정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미국 경제]

Reuters: US import prices increase by the most in two years in April
4월 미국의 수입 물가 2년 만에 최고치 기록

- 에너지 제품 등의 비용이 상승하는 가운데 4월 미국의 수입 물가가 2년만에 가장 크게 상승해 미국 내 인플레가 당분간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 수입 물가는 지난달에 0.9%로 크게 올랐는데 이는 지난 2022년 3월 이래 가장 큰 폭의 상승세인 데다 3월 상향 조정된 0.6%보다 더 높았다고 연방 노동통계청은 발표했다.

- 지난달 4월까지 1년 동안의 수입 물가는 1.1% 크게 상승해 지난 2022년 12월 이래 가장 큰 상승 폭이다. 수입 연료 물가는 4월에 2.4%, 수입 식품

물가는 1.7% 올랐다.

Reuters 기사

Bloomberg: US Jobless Claims Drop Back After New York School Break Ends
미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 감소…뉴욕 공립학교 방학 끝나면서

- 지난주 미 신규 실업청구 건수가 감소했다. 뉴욕 공립학교 봄방학이 끝나 학부모들이 직장으로 복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봄 방학 중 학교 버스 운전기사도 실업수당을 신청했었다.
- 5월 11일 끝나는 주의 신규 실업청구 건수는 1만명 하락한 22만2천건이라고 목요일 연방 노동부는 밝혔다. 블룸버그의 이코노미스트 대상 설문 예상치는 22만건이었다.
- 실업수당을 계속 받는 전체 신청자 건수는 총 1백79만건으로 밝혔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Fed's Williams Sees No Current Reason to Change Stance of Policy
뉴욕 연준 총재, "연준, 현 통화 정책 바꿀 필요 없다"

- 존 윌리엄스 뉴욕연준 총재는 최근 인플레 지표는 점차 하락하는 물가 상황을 확인해 주지만 금리를 조정하려면 좀 더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 그는 "현재로서는 연준의 통화 정책을 바꿀 어떤 지표들을 찾을 수 없다"며 "물가가 조만간에 인플레 목표 2%로 내려간다는 큰 확신을 갖지 못한다"고 말했다.
- 현재의 연준 금융정책, 즉 고금리 정책이 제대로 됐다는 것이다.

Bloomberg 기사

WSJ: America Is Still Headed for a Soft Landing
미국은 여전히 소프트랜딩으로 향한다

- 작년 하반기에 인플레가 감소하고 견고한 경제를 보였던 것이 올해 첫 3개월간은 끈질긴 고물가로 바뀌었다. 그러다가 투자자들은 어제 수요일 4월 소비자물가가 둔화되었다는 발표에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소매 판매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증시는 어제 크게 뛰었다.
- 어제 수요일 오후까지 선물 시장은 연준이 9월 회의 때까지 한두차례 금리 인하 가능성 확률을 75.3%로 보았다. 물론 7월 연준 회의를 지켜보아야 하

는데 그때까지 인플레, 일자리, 소매 판매 등에 대한 지표가 두차례 더 있게 된다.

WSJ 기사

[미국 금융]

Bloomberg: Dow Eclipses 40,000 for First Time as Investors Bet on Rate Cuts
다우존스 사상 처음 40,000 돌파…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 오늘 목요일 다우존스가 사상 처음으로 40,000을 돌파했다. 연준이 금년 하반기에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주식 시장이 계속 랠리를 지속할 수 있다는 투자자들의 자신감이 커진 탓이다.

- 미국 3대 증시 중 가장 오래된 다우존스 지수는 미국 경제의 회복세와 인플레 둔화, 강한 기업 수익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블룸버그 데이터에 따르면 다우지수가 마지막 1만 포인트(33% 상승)를 달성하는데 어제 수요일까지 872 거래일이 걸렸으며 지난 2년간 연준의 고금리 정책으로 인한 손실을 모두 만회했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Jamie Dimon Sees 'Lot of Inflationary Forces in Front of Us'
JP 모건 CEO, "많은 인플레 요소가 우리 앞에 있다"

- Jamie Dimon은 "시장에서 보이는 것보다 인플레에 대해 더 걱정된다"고 말했다.

- 그는 상당할 정도의 물가 압력이 미국 경제에 여파를 주고 있고 고금리 정책이 많은 투자자들의 예상보다 더 오래 유지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플레 요소들로 그린 경제, 재군사화 추세, 인프라 지출, 무역 분쟁, 상당한 재정 손실 등을 꼽았다.

- 그는 고금리와 스테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부동산, 부채 기업들, 개인 신용 등에 부담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Bloomberg 기사

[미국 생활]

CNBC: Average consumer carries $6,218 in credit card debt, as more borrowers are falling behind on their payments
미 소비자 평균 카드빚은 $6,218… 연체자 더 늘어난다

- 미국인의 크레딧 카드 부채가 총 1조12억달러에 달한다고 뉴욕연방은행이 이번 주에 밝혔다.

- 이를 개인당 평균치로 보면 5천2백18달러라고 TransUnion은 밝혔다. 이처럼 소비자들이 신용카드에 의존하면서 더 많은 부채자가 연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위 두 기관은 밝혔다.

CNBC 기사

[유가]

Bloomberg: Oil Rises as Shrinking US Stockpiles Add to Risk-On Sentiment
유가 상승 … 비축분 감소에 따른 우려로

- 유가가 소폭 상승해 회복세를 보이면서 박스권 안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트레이더들이 미 원유 재고 감소와 미국의 인플레이션 전망에 무게를 뒀기 때문이다.

-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 (WTI)는 약 1% 상승하여 79달러 이상에서 거래되었다. 이번 달에 미국 벤치마크는 배럴당 약 77달러에서 82달러 사이를 오르내렸다.

- 지난 주에 미국 원유 재고는 250만 배럴 감소하여 3월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였으며, 전국 원유 재고는 한 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표가 6개월 만에 처음으로 하락하는 것은 미 연준이 통화정책을 완화할 여지가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며, 이에 따라 위험 자산은 사상 최고치까지 상승한 뒤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Bloomberg 기사

[주택]

Bloomberg: US Housing Starts, Permits Fall Short as Mortgage Rates Rise
모기지 금리 상승으로 '미 신규 주택 허가' 감소

- 4월에 미국의 신규 주택 건설은 예상보다 적게 증가했고, 신규 허가도 감소했다. 이는 최근 모기지 금리 상승으로 인해 건설업자들이 머뭇거리고 있고 있음을 보여준다.

- 목요일 발표된 정부 데이터에 따르면, 주택 착공 건수는 전년 대비 5.7% 증가한 1백36만 건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전월 대비로는 하향 조정된 수치이다.

- 단독주택 건설의 승인 허가도 작년 말부터 증가세를 보이다가 8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3개월 연속 감소했다.

- 미래 건설을 예측하는 지표인 전체 주택 건축 허가는 3% 감소한 144만 채로, 2022년 말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Bloomberg 기사

WSJ: Florida and Texas Show Signs of Home Prices Falling
플로리다, 텍사스 집값 하향 움직임

- 미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주택 매물이 적어 집값이 뛰었다. 단독 기존 주택 판매 가격이 올해 첫 분기에 미국 메트로 지역 대부분인 93% 지역에서 올랐다. 기존 주택 중간 가격은 작년보다 5% 상승한 38만9천4백불이다.
- 그러나 주택 시장이 둔화되고 플로리다와 텍사스 같은 일부 도시에서 가격이 둔화하고 있다. 이들 지역에서 최근 수년간 신축공사가 활발해 주택 판매 숫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 이 두 개 주의 경우 지난 2019년부터 작년까지 매년 단독주택 착공 허가 건수가 전체 허가의 25% 이상이었다.

WSJ 기사

[미중 경제]

WSJ: U.S. Blocks Imports From 26 More Chinese Companies Over Forced Labor Concerns
미국, 강제 노동 관련 26개 중국 기업 수입 차단

- 미국이 강제 노동과 관련된 혐의로 수십 개의 중국 섬유 회사의 수입을 차단한다. 이는 불공정 경쟁에 대한 미국 업계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이다.
- 오늘 목요일, 바이든 행정부는 위구르 강제 노동 방지법의 기업 목록에 26개 기업을 추가할 예정이다. 이 목록은 미국이 중국 신장 지역의 위구르족과 기타 소수 민족을 대상으로 한 강제 노동에 연루된 기업들을 지정한 것이다.
- 국토안보부 장관 Alejandro Mayorkas는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WSJ 기사

CNN Business: Biden’s trade chief walks back comments contradicting Biden on tariffs and inflation
미 무역대표부, ‘대중 관세 부과, 미 가격 상승 일으켜’ 우려 일축

- 미 무역대표부 Katherine Tai는 바이든 대통령의 중국산에 대한 새로운 관세 부과로 트럼프 대통령 시절과 같이 미 소비자들에게 물가 상승을 야기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부인했다.
- 그는 “관세와 인플레와의 관계는 더 이상 맞지 않는다”고 이번 주 화요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말했다.
- 그러나 이러한 발언은 이코노미스트들과 심지어 바이든 행정부 관계자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트럼프 당시의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가 소비자들과 기업들에 부담을 주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CNN Business 기사

WSJ: Microsoft Asks Hundreds of China-Based AI Staff to Consider Relocating Amid U.S.-China Tensions
MS, 미중 긴장 속 중국 직원에게 ‘해외 이전’ 요청

- 미중 간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중국 내 클라우드 컴퓨팅 및 인공지능(AI) 부문 직원 수백 명에게 해외 이전을 고려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 관계자들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대부분의 중국 국적 직원들에게 최근 미국, 아일랜드, 호주, 그리고 뉴질랜드 등으로의 이전 기회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약 7~8백명이 이러한 제안을 받았으며, 이들 중 대다수는 머신러닝 및 기타 클라우드 컴퓨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 이러한 제안은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의 최첨단 AI 개발 능력에 대해 더 엄격한 제한을 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나온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중국 내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미국 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WSJ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WSJ: Big Companies Remain Dividend Holdouts Four Years After Pandemic Began
팬데믹 종결 불구 대기업들 여전히 배당금 지급 미룬다

- 2020년에는 약 200개의 미 상장 기업이 배당금 지급을 중단했으나, 대부분이 이후 배당을 다시 시작했다. 그러나 4년이 지난 지금,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으로 완전한 회복이 늦춰지면서 거의 50개 기업이 여전히 배당을 보류하고 있다.
- 이러한 기업들은 ‘배당 보류 기업(dividend holdouts)’이라고 불린다. 예를 들어, 보잉과 카니발을 비롯한 기업들은 배당금을 지급하기 전에 레버리지 축소, 생산 문제 해결, 자본 투자 등의 다른 재정적 문제를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 배당을 보류한 기업들에는 American Airlines Group, Aptiv, Boeing, Carnival, Expedia Group, Royal Caribbean Cruises, 그리고 Western Digital 등 S&P 500에 속한 미국 최대 상장사들도 포함된다.

WSJ 기사

WSJ: Walmart Posts Sales Growth, Raises Earnings Outlook for the Year
월마트, 올해 수익 전망 상향 조정

- 월마트의 매출이 지속해서 성장 중이다. 이는 미국 소비자들이 고물가로 인해 더 저렴한 생필품을 찾게 되면서 발생한 현상이다.
- 경영진은 특히 식료품 분야에서 연 소득 10만 달러 이상인 고소득 가구 사이에서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 이에 따라 월마트는 연간 매출과 수익에 대한 전망을 상향 조정했다.
- 지난 1분기 매장의 매출은 3.8% 증가했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고물가였던 작년과 비교하면 성장세가 둔화한 것이다.
- 미국 내 월마트 매출은 증가하고 있지만, 고객들의 방문당 평균 지출액은 작년 동기 대비로는 보합을 유지했다.

WSJ 기사

美 4월 소매판매, 3월과 같은 수준…"시장 전망 하회해 정체

"근원 소비자 물가, 2021년 4월 이후 상승세 최저"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소폭 완화했다.

근원 소비자 물가는 2021년 4월 이후 최저 수준의 상승세를 기록했다.

미 노동부는 15일(현지시간) 지난달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지난해 동월 대비 3.4% 상승했다고 밝혔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 offic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ccsend.com